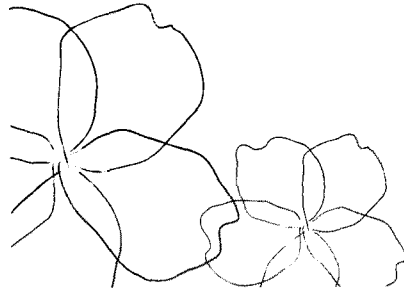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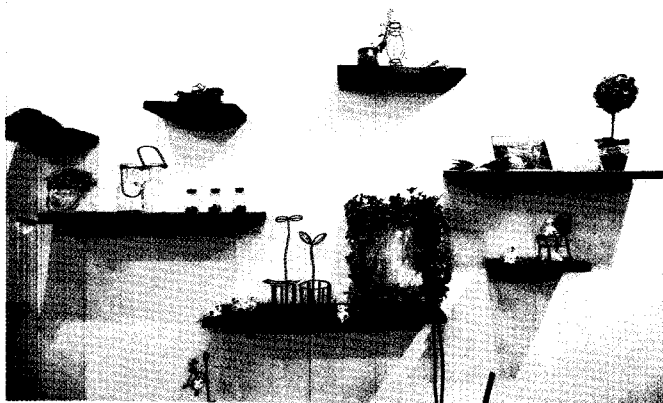


정현주 플로리스트

## 꽃향기와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

JW메리어트호텔 플라워 디자이너를 거쳐 프랑스 피베르디(Piverdie) 스쿨에서 플로리스트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는 플라워카페 에서 향기를 디자인하는 플로리스트 정현주 씨. 지난 2월 10일 역삼동에 위치한 플라워카페에서 정현주 플로리스트(33세)를 만났다.





## 정현주 플로리스트가 알려주는 건강을 돕는 꽃향기

국화 심혈관계 장애 예방, 향산화 및 항암 효과가 있다.

안개 불면증에 좋다.

야카시아 식욕 증진,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프리지아 혈압을 내리는데 효과가 있다.

튤립 기분과 불안한 마음을 달래준다.

## 플로리스트가 만드는 꽃차

진한 꽃향기가 전해지는 플라워카페는 정현주 플로리스트가 마음껏 플라워 디자인을 하고 플라워 레슨을 하는 공간이다. 플로리스트가 꽃집이 아닌 카페에 있는 모습이 조금은 낯설기도 하지만, 그녀는 2007년부터 카페라는 공간에서 꽃향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플로리스트로 첫 명함을 내민 곳은 호텔의 플라워 디자이너였다. 5년 동안 호텔에 근무하면서 객실, 행사장, 웨딩 꽃 장식을 도맡아 했다. 꽃향기에 빠져 지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잃는 것도 있었다. 바로 건강이다.

“꽃 작업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향기롭고 예쁜 작업은 아니에요. 커다란 화병에 물을 가득 채워 이동하고 나면 근육도 늘어나고, 뼈도 틀어지죠. 꽃에 파묻혀 지내다 보면 습진이 생기기도 해요.”

플로리스트라면 모두가 탐내는 호텔 플라워 디자이너였지만, 정현주 플로리스트는 자신만의 향기를 담은 플라워 디자인에 도전하기 위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프랑스 피베르드

(Piverdie) 스쿨에서 플로리스트 과정을 수료했다.

실무와 공부를 익힌 다음 완성된 공간이 플라워카페다. 자신의 공간에서 현주 씨는 향기를 담아 꽃을 디자인하고, 플라워 레슨을 진행한다.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꽃차로 향기를 전한다.

## 스위트피 꽃향기에 기분까지 좋아지다

플로리스트로 힘든 순간도 많았다. 특히, 옥시펜타니움이라는 꽃의 줄기를 자를 때 나오는 흰색 진액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플로리스트로서 행복하다. 특히 플라워 레슨을 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그녀는 현재 일반 수강생을 대상으로 플라워 레슨을 진행하고 있다. 스트레스 가득한 삶에 찌들어 있는 수강생들이 찾아와 꽃을 만지며 행복해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꽃으로 위로받는 모습을 볼 때 그녀까지 덩달아 건강해지는 기분이라고.

“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스위트피라는 꽃이 있어요. 방울도 아닌 것이 촘촘히 달려 있는데, 향기가 참으로 달콤해요. 향기 때문에 기분까지 좋아지죠. 이렇게 예쁜 꽃과 함께하니 제가 건강할 수밖에 없겠죠?” 향기와 함께 생활하는 그녀가 건강한 이유다. **MEDYCHECK**

“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스위트피라는 꽃이 있어요. 방울도 아닌 것이 촘촘히 달려 있는데, 향기가 참으로 달콤해요. 향기 때문에 기분까지 좋아지죠. 이렇게 예쁜 꽃과 함께하니 제가 건강할 수밖에 없겠죠?” 향기와 함께 생활하는 그녀가 건강한 이유다.

